

중국어 말하기 교재 속의 인칭직시에 대한 일고

- ‘我們’을 중심으로*

박 찬 욱
(서울여자대학교)

1. 서론

본고는 중국어 교재에서 보이는 인칭직시인 ‘我們’의 사용 상황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중국어 말하기 교육으로의 화용적 요소 도입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직시란 발화나 발화 사건의 문맥 자질들이 어휘적 또는 문법적 수단에 반영되는 현상을 가리킨다.(Huang2006[이해운 2009:167]) 발화를 하는 시점과 장소에서 발화자가 주변 상황을 사회적, 심리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또 그것을 어휘나 기타 문법 자질로써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직시의 주된 관심사이다. 직시는 크게 발화자를 중심으로 한 인칭직시, 발화 시점을 중심으로 한 시간직시, 발화 장소를 중심으로 한 장소직시로 나뉘는데,¹⁾ 본고의 주요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1) 이 외에도 담화직시, 사회적 직시가 있는데, 이들 다섯 직시 간 분류의 중심에는 다음 다섯 가지 가정을 따른다: 1) 중심인물은 화자이다; 2) 중심시간은 화자가 발화를 한 시간이다; 3) 중심장소는 발화 당시의 화자 위치이다; 4) 담화중심은 화자가 발화 시 존재하는 점이다; 5) 사회적 중심은 청자 또는 지시물의 지위와 신분이 비교되는 화자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다.(Levinson 1983[이익섭, 권경원 1992:66])

논의대상인 ‘我們’은 이 중 인칭직시에 포함된다. 논의에 앞서 다음의 예를 보자.

(1) [3.14.2]²⁾

志永, 我們³⁻¹⁰看你来了! …… [표현]³⁾

예(1)은 회화 단락의 서두 부분에 출현하는 대화문이다. 여기서 ‘我們’은 누구를 가리킬까. 언어적으로 ‘우리’라고 해석만 해야 한다면 문제는 간단하다. 하지만 그것은 번역에 그칠 뿐 ‘我們’이 실제로 누구와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대화를 구성하는 총 출현 인물들을 알아야 하고 또 그 중 ‘我們’으로써 지칭되는 구성원들이 누구인지 알아야만 비로소 ‘我們’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파악할 수 있다. 즉 ‘我們’은 그냥 ‘우리’가 아니다. ‘我們’의 구성 내역과 포괄 범위는 맥락에 대한 이해,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화자가 지금의 대화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고 해석된다. 이것이 직시의 문제다. 이 점에서 직시는 조용(anaphora)과 차이를 보인다. 아래 예를 보자.

(2) [2.7.4]

這個周末我和杰夫, 王平一起去旅行了. 我們²⁻⁸去了一個非常漂亮的地方. …… [진술]

예(2)도 예(1)처럼 회화 단락의 서두 부분이다. 하지만 ‘我們’이 누구를 가

2) 예문 상단의 각괄호 내 번호는 각각 권 호, 과 수, 회화 수이다. 예를 들어 [3.14.2]는 제3권 제14과 2번째 회화에 소속된 예문임을 의미한다. 아울러 ‘我們’에 붙은 위첨자는 각 권에 출현한 순서를 의미한다. 예컨대 ‘我們³⁻¹⁰’은 제3권에서 10번째 출현한 ‘我們’을 가리킨다. 이하 동일하다.
3) Searle(1979:12~20)에 의하면 화행은 크게 다섯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단정(assertives), 지시(directives), 언약(commisives), 표현(expressions), 선언(declarations)이 그것이다. 본고는 ‘我們’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논의의 편의를 돕고자, 제시된 예문의 각 행마다 상기 분류에 준하여 대화문이 수행하는 행위 범주를 명기하였다.

리키는지는 앞서 언급된 인물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두 예에서 볼 수 있듯, 언어 텍스트에서 '무엇'을 대칭(代稱)하고 있는가가 조용이라면 언어가 상황 맥락과의 관계 속에서 실제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가가 (인칭)직시이다. 그동안 말의 형식 측면에서 '1인칭 복수 대명사'라는 어법 범주으로써 이 둘에 대한 교육과 학습이 이루어졌다면, 그래서 조용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했다면, 이제는 말의 사용 측면에서도 그것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언어 층위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언어와 실제 간의 관계를 파악하며 참여하는 것이 곧 '말하기'이기 때문이다. 말하기 교재를 화용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사실 교재라는 틀을 벗어나, 일상 대화 속에서 예(1)의 대화문이 출현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앞서 제기된 '我們'의 포괄범위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다. 발화자 스스로가 주변 환경에 대한 능동적 이해를 바탕으로 '我們'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재 속 대화문은 일상의 대화와 차이를 갖는다. 교재 속 회화는 현실이 아니다. 현실을 가공한 또는 이상화시킨 설정이다. 학습자는 교재에 기초한 학습내용을 바탕으로 설정된 상황과 대화문을 끊임없이 현실에 대입시키려 노력한다. 그 과정에서 학습자는 교재 속 대화문이 모든 상황에 능통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기도 하고 교육어법과는 다르게 또는 그 이상으로 구사된 원어민의 어법에 혼란스러워하기도 한다. 교수자로서 교재를 교수(教授)의 매체인 동시에 분석과 관찰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다. '교육 매체'의 시각에서 교재는 교수의 대상이지만 '분석 대상'의 시각에서 교재는 수정과 보완의 대상이다. 물론 이 두 시각과 그에 따른 실천은 같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을 준비,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정, 보완 대상을 발견하고 이는 다시 분석과 설명을 통해 교육에 환원되어야 한다. 그와 같은 흐름에서 일상의 대화를 기초로 관찰해보면, 학습자로 하여금 교재 속 회화로 써도 설정과 현실 간의 간극을 좁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사에 의하면 교재 속 '我們'의 사용을 논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我們'에 대해 교재가 아닌 다른 장르의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한 논의로는 박찬욱(2005, 2009)이 있다. 박찬욱(2005)은 중국의 라디오

진행자가 자신의 역할과 지위를 빌어 운용한 ‘我們’의 다양한 지칭범위를 논한 바 있고 박찬욱(2009)은 중국 지도자의 신년 연설 속에 출현하는 ‘我們’의 지칭범위를 담화구조의 분석을 기초로 논한 바 있다. 이 중 박찬욱(2005)의 실증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본고의 논의에 시사점을 준다. 우선 화자 자신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我們’이 가리키는 구성원은 여러 경우의 수로 그 폭을 달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영미권의 ‘we’와 마찬가지로 ‘我們’도 포괄, 배제, 차용의 구분을 둘 수 있는데 포괄식은 ‘咱們’과 동일한 포괄범주를 가리키고 또 차용식은 ‘我’나 ‘你(們)’, ‘他們’처럼 포괄 범주를 달리하는 대상들까지도 가리킨다는 점이다. 이에 본고는 박찬욱(2005)의 유형 분류를 바탕으로, 교재 속의 ‘我們’도 것처럼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교육에서 그 역동성을 어떻게 구현하고 공유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본고는 말하기 교재로 널리 사용되는 교재 중 하나인《北京大學 한어구어》1, 2, 3권, 42개 과(課) 168개의 회화단락에 분포하는 총 35개의 ‘我們’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론에서는 먼저, 교재 속 ‘我們’이 지칭 범위, 용법, 후치 부가성분 유무, 화행과의 관계 등에 걸쳐 보이는 분포 상황을 살펴본다. 그리고 그 중 지칭 범위에 초점을 맞춰 ‘我們’의 포괄범위 및 기능을 유형별로 분석, 기술한다. 뒤이어 각 유형별 ‘我們’이 갖는 주요 기능, 교재에서의 출현 단계, 텍스트 이해를 위한 시사점 등을 논한다. 결론에서는 본고의 논의가 갖는 함축 및 교재 집필 시의 주의점 등을 논한다.

2. 본론

교재 속 ‘我們’에 대한 분석은 교육을 염두에 둔다는 측면에서 다음 두 가지 관점이 요구된다. 첫째, 가리키기의 성질에 대한 관점이다. 일상의 대화 현장에서 ‘참여자’로서 직시를 사용하는 것과 교재의 학습 현장에서 ‘학습자’로서 직시를 사용하는 것은 다르다. 일상에서의 능동적인 대화 참여자가 주변 상황을 판단해가며 사용한 직시는 ‘발화 당시의 맥락이 고려된 결과’로서의 가리키

기이지만 교실에서의 대화 참여자가 학습자 신분으로서 사용하는 직시는 학습자와 공유되지 않은 ‘저자만의 맥락 속에서 제시된 결과’로서의 가리키기이다. 따라서 말하기 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재 속 직시의 이해는 ‘저자의 맥락’에 대한 이해와 그 속에서 ‘그’ 직시가 어떻게 그리고 왜 쓰였는가에 대한 분석을 요구한다.

둘째, ‘어법범주’와 현실 간의 관계에 대한 관점이다. 그동안 말하기 교육에서는 ‘대명사’ 또는 ‘조응어’라는 어법 범주로서 ‘我們’을 칭해왔지만 이는 다분히 언어 텍스트 전후의 언어성분 간 대용(代用)을 강조했던 반면, 그것이 설정이든 현실이든지에 상관없이, 언어와 실제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따라서 양자 간의 관계를 살피는데 있어서는 단어, 문장, 텍스트라는 기존의 범주는 물론, 그것을 넘어, 교재 속 화자의 신분과 화자 간의 관계 그리고 수행되는 언어 행위 등을 모두 해석의 단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언어와 기능 간 관계 고찰은 매 교육의 장마다 요구되는 ‘의사소통 능력’ 향상의 지원과도 맥을 같이 한다.

1) 분포

‘我們’은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준하여 청자를 포함한 ‘포괄식’과 청자를 배제한 ‘배제식’, 형식과는 다르게 기타 범주를 지칭하는 ‘차용식’으로 나뉠 수 있다.⁴⁾ 또한 제스처가 동반되는가에 준하여 ‘제스처 용법(gestural usage)’과 ‘상징적 용법(symbolic usage)’으로도 분류가 가능하다.(Levinson 1983 [이익섭, 권경원 1992:67~71])⁵⁾ 이들 분류에 따른 아래 표는 본고의 분석대상

4) ‘포괄’과 ‘배제’는 영어의 ‘inclusive’와 ‘exclusive’에 대응되는 명칭으로서 청자를 ‘포함하는가’, ‘배제하는가’에 따른 것이다. 정무주(1998)는 ‘we’의 유형을 ‘포괄’과 ‘배제’로 양분하고 ‘차용’에 해당하는 형식을 ‘포괄’의 범주로 편입시키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박찬욱(2005)의 분류를 따라, ‘차용’을 또 다른 범주로 설정하여 ‘포괄’, ‘배제’, ‘차용’의 3분 범주로 ‘我們’의 유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5) ‘제스처 용법’이란 직시의 이해를 위해 반드시 제스처가 동반되어야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상징적 용법’이란 제스처가 동반되지 않아도 발화 상황 및 언어 맥락 등으로 직시 대상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경우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Levinson 1983[이익섭, 권경원 1992:69])

(1) [제스처 용법] You, you, but not you, and dismissed.

에서 집계된 ‘我們’의 분포 상황을 나타낸다.

분류	지칭 범위			용법		후치 부가 성분 유무	회행				
	포괄	배제	차용	제스처	상징		단정	지시	언약	표현	선언
집계	2	22	11	0	35	13	23	5	3	4	0
출현수	2	22	11	0	35	13	23	5	3	4	0
백분율	5.7	62.9	31.4	0.0	100.0	37.1	65.7	14.3	8.6	11.4	0.0

〈표1. ‘我們’의 유형과 출현 맥락〉

우선 지칭 범위별로 보면 청자를 배제하는 ‘我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는데 이는 교재의 ‘我們’이 가리키는 ‘우리’란, 흔히 청자를 배제시킴으로써 청자와는 대별되는 무리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같은 분포로 미루어, 물론 좀 더 많은 집계량이 요구되나, 교재 속 ‘我們’의 원형적인 기능이 ‘배제’의 성격을 갖는다고도 조심스럽게 짐작할 수 있다.⁶⁾ 흥미로운 점은 차용식 ‘我們’이 보이는 분포인데, ‘我們’의 형태를 띠면서도 실질적으로는 ‘我’를 가리키는 경우가 약 삼분의 일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러 원인을 추정해 볼 수 있었는데, 분석대상 내에서 보이는 ‘我們’의 상황으로 미루어, 특히 불평, 불만, 거절 등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거나 체면의 위협을 최소화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다시 논의코자 한다.

다음으로 제스처의 동반 유무 면에서 보면, 교재 속 ‘我們’의 포괄 범위는 기본적으로 화자의 공간적 위치 설정이나 회화문 내에 제시된 인적 구도 등으로써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스처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해석이 가능한 경우는 발견할 수 없었다. 후치 부가성분이란 ‘這兒’, ‘那兒’ 등의 지시사, ‘倆’ 등의 양사, ‘中國人’, ‘學校’, ‘老師’와 같은 일반 명사 등 ‘我們’의 바로 뒤에 위치한 성분을 가리킨다. 집계 상 약 삼분의 일이 ‘我們’ 단독으로 쓰이기 보다는 기타 성분과 함께 쓰였는데 주로 소속 집단이나 장소 등을 가리키거나 자신이 그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표현할 때가 그에 속한다.

끝으로, ‘我們’이 어느 언어행위의 수행 과정에서 자주 쓰이는지를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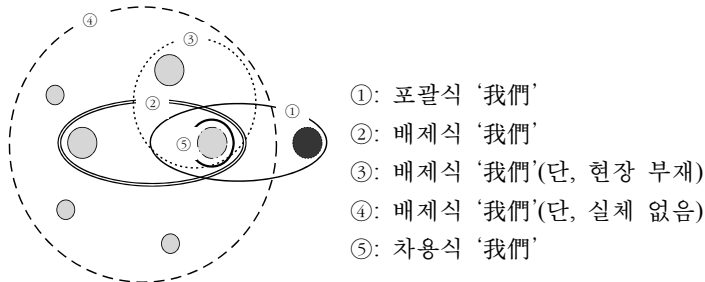
(2) [상징적 용법] What did you say?

6) 索振羽(2000:44)도 ‘咱們’은 포괄식에 속하고 ‘我們’은 포괄식도 있지만 많은 경우 배제식에 속한다고 하였다.

주로 단정의 화행(assertives)에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정은 주로 화자 자신의 믿음과 관련이 있는데 하위 분류로는 단언하기, 주장하기, 결론짓기, 보고하기, 진술하기 등이 있다.(Huang2006[이해운 2009:133]) 교재에서 ‘我們’은 주로 화자가 경험한 일에 대한 진술하기와 호응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교재 내용이 주로 의식주와 관련되어 있고 내외국인 친구 간의 대화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자 자신의 국가나 문화 등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교재에서 지시 화행과 언약의 화행은 주로 식당과 같은 서비스 장(場)에서 각각 고객과 종업원이 수행하였고, 표현의 화행은 화자 자신의 감정에 기반하여 수행하는 행위로서 교재 내에서는 주로 위로, 불평 등의 행위와 호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언 행위는, 선언이라는 말 힘이 곧 세상의 변화를 이끈다는 점에서, 강한 권력을 위임받은 화자가 설정되어야 하는데 그것의 설정 자체가 어려운 만큼 분석대상 내에서는 출현하지 않았다.

2) 유형

앞서 분포에 대한 논의에서 ‘我們’은 포괄식, 배제식, 차용식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청자를 포함하는가 하지 않는가 만을 드러낼 뿐, 교재라는 특정 자료와 그에 부속된 상황 하에서 ‘我們’이 가리키는 구체적 인적구성과 범위는 보여주지 못한다. 이에 아래에서는 말하기 교재 속에서 출현하는 ‘我們’의 구체적 인적구성과 포괄범위를 유형별로 고찰할 것인데, 현상에 대한 사례 분석에 앞서, 논의의 편의를 위해 ‘我們’이 지칭하는 포괄 범위를 유형별로 도표화하고 그에 따른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아래 도표를 보자.



〈그림1. 교재 속 ‘我們’의 포괄범위〉

그림1에서 회색 원은 화자 또는 화자와 동일한 학교, 민족, 국가 등에 소속되어 화자가 동질감을 느끼는 구성원을 의미하며 검은색 원은 청자를 가리킨다. 그리고 각 번호가 매겨진 포괄선 중에서 실선은 대화 현장에 존재하는 참여자(또는 그 그룹)를 가리킨다. ①, ②, ⑤번이 그에 속한다. 그리고 점선은, 동질감을 느끼는 구성원이 대화 현장에 존재하지 않거나 민족이나 국가 등 그 규모를 가늠하기 힘들어도 화자가 '我們'으로써 그것을 가리킬 때 사용된다. ③, ④번이 그에 해당한다. 각 번호가 가리키는 바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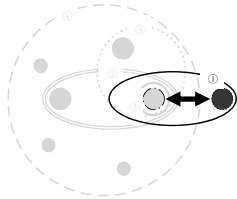
우선 ①은 포괄식 '我們'을 뜻하는 포함 관계를 가리킨다. 화자는 '我們'으로써 화자 자신과 청자를 포괄하여 가리킨다. ②부터 ④까지는 배제식 '我們'을 가리킨다. 같은 배제식 '我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의 포괄범위는 상이한데, ②는 일상의 대화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예로서 화자 자신과 화자가 '우리'라고 인식하는 참여자를 포함한다. 이 때 참여자는 화자와 현장에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형성하지만 역할은 제2의 청자이다.

제2의 청자란 Clark(1996[김지홍 2009:31])의 부차 참여자(side participant)에 해당하는 개념으로서 화자가 청자를 향해 발화할 때, 주요 청자가 아닌, 곁에서 듣고만 있어야 하는 참여자를 가리킨다. ③은 화자가 대화 현장에는 없으나 '我們'으로써 화자 자신과 유대감을 갖거나 공동의 일을 도모하는 구성원을 포괄하여 가리키는 경우이다. ④는 화자가 민족이나 국가 등 그 규모를 가늠하기 힘든 공동체를 '我們'으로써 가리키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⑤는 차용식 '我們'을 의미하는 포함관계이다.

화자는 '我們'으로써 다수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화자 자신만을 가리키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를 차례대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포괄식 '我們'

그림1에 준하면 포괄식 '我們'은 다음과 같이 ①에 해당하는 포괄 범위를 갖는다.



〈그림2. 포괄식 ‘我們’〉

(3) [1.9.3.1]

- 安妮: 杰夫, 今天的作業我有一個問題, 你看看。 [요청]
 杰夫: 這個問題我也不懂。 [거절]
 安妮: 我們¹⁻⁷問問老師吧。 [제안]
 杰夫: 你知道田老師的電話號碼嗎? [수용/질문]
 ……

예(3)은 문제 풀이를 주제로 安妮와 杰夫 간에 주고 받는 대화문이다. 安妮가 숙제와 관련하여 杰夫에게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데 杰夫는 그에 대해 모르겠다며 요청을 거절한다. 그러자 安妮가 선생님께 여쭙볼 것을 제안하는데 이 때 ‘我們’으로써 ‘문제를 풀 수 없는 사람들’, 즉 ‘너’와 ‘나’를 포괄적으로 가리키고 있다. 이 때 ‘我們’은 ‘咱們’과 동일한 지칭 범위를 갖는다. 다음 예를 살펴보자.

(4) [3.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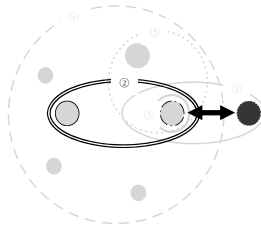
- 主持人: 下面我們³⁻¹³輕鬆一下. 請觀眾們說說您最大的希望是甚麼.
 開始吧! [제안,요구]
 本科生: 我希望能考上博士。 [수용/표현]
 醫生: 我希望能開一家自己的醫院。 [수용/표현]
 ……

예(4)는 토크쇼 “實話實說”를 연상케 하는 오락 프로그램의 예로서, 사회자의 대화문으로 미루어 봤을 때, 대화 단락에 앞서 ‘최대의 바람’을 주제로 게스트 간에 열띤 토론이 있었음을 가정하고 있다. 게스트 간의 토론을 일단락 지으며 관중의 의견을 경청할 시간을 갖고자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이 때 사회자는 “輕鬆”의 수행위자이자 주요 청자인 게스트에게 잠시 쉬어갈 것을 제안

하며 ‘我們’을 사용하고 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방청석에 있는 관중과 시청 중인 시청자들까지도 청자로 설정이 가능하지만, 뒤를 잇는 “觀衆們”과 “說說”가 각각 선행하는 “我們”, “輕鬆”과 대별되고 또 그에 따른 행동을 직접적으로 촉구한다는 점에서, 상기 예에서의 ‘我們’은 화자 자신(사회자)과 청자(게스트)를 포괄적으로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2) 배제식 ‘我們’

그림1에 준하면 배제식 ‘我們’은 ②, ③, ④의 포괄범위를 갖는다. 먼저 ②에 해당하는 예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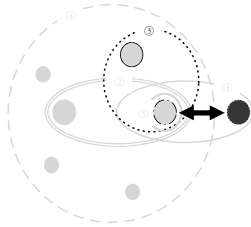
〈그림3. 배제식 ‘我們’〉

(5) [2.2.2]

.....
 杰夫: 再来個炒土豆絲, 一個鐵板牛肉。四個菜够不够? [요구,질문]
 安妮: 够了。 [대답]
 麗莎: 来三碗米飯。 [요구]
 小姐: 喝點兒甚麼? [질문]
 杰夫: 兩瓶啤酒。小姐, 我們²⁻²很餓, 快一點好嗎? [대답/요구,진술, 요구]

예(5)는 식사를 주제로 한 대화문이다. 유학생들인 杰夫, 安妮, 麗莎가 식당에서 각각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주문하는데, 기본적인 주문을 마친 뒤 杰夫가 빨리 나올 것을 종업원에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我們’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我們’은 청자인 종업원을 제외한, 현장에 있는 모든 구성원(杰夫, 安妮, 麗莎)을 포괄하는데, 식당이라는 장소와 주문이라는 행위가 맥락으

로 제공되면서 인적 구성 간에 전제된 ‘우리 대 청자’, 즉 ‘손님 대 종업원’이라는 구도가 ‘我們’에 대한 해석을 지원해 주고 있다. 다음으로 ③에 해당하는 예를 보도록 하자.



〈그림4. 배제식 ‘我們’(단, 현장부재)〉

(6) [3.9.3.1]

.....

麗莎:我最喜歡逛書店了, 逛書店的感覺可好了. [표현]

杰夫: 改天再去吧. [요구]

麗莎: 怎麼? [질문]

杰夫: 你看今天天氣這麼好, 還不如找幾個朋友去劃船呢.[대답/진술, 요구]

麗莎: 這個..... [거절]

杰夫: 哎, 我正看着一本新書, 你一定喜歡. [진술, 단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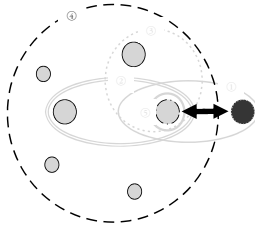
麗莎: 甚麼書? 借我看看吧. [질문, 요구]

杰夫: 你得先答應我, 和我們³⁻⁷一起去劃船. [요구]

麗莎: 好吧, 我答應你. 快告訴我, 甚麼書? [수용, 요구]

예(6)은 개인의 취향을 주제로, 서점에 책을 보러 가려는 麗莎가 놀러가는 杰夫를 우연히 만나 나누는 대화이다. 서점을 둘러보는 것이 좋다는 麗莎의 의사에 반해 杰夫는 날씨 좋은 날엔 친구들과 어울려야 한다며 麗莎에게 함께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麗莎가 망설이며 거절의 뜻을 비추자 杰夫는 麗莎가 좋아할만한 신간을 제시하며 재차 동행을 요구한다. 이 때 麗莎가 관심을 보이자 杰夫는 자신의 요구에 먼저 응하라고 종용하면서 ‘我們’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我們’은 청자인 麗莎를 제외하고 있는데, ‘독서 대 오락’이라는 취향 상의 대별 구도가 ‘청자 대 화자(및 그가 속한 그룹)’이라는

인적 구도와도 대응된다는 점을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앞서 예(5)와 다르게, ‘我們’이 가리키는 구성원이 발화 현장에 없다는 점이다. “幾個朋友”만 막연하게 제시될 뿐 ‘我們’의 인적 구성 상세가 청자와 공유되어 있지 않는데, 이는 청자가 배제된 ‘我們’의 경우 발화 현장에 화자와 청자 둘만 있다고 하더라도 발화 당시 화자의 인식과 필요 여하에 따라 직시의 범위가 유동적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 유동성에 있어 확장의 최대치라고 할 수 있는 예가 아래와 같은 ④의 포괄 범위이다.



〈그림5. 배제식 ‘我們’(단, 실제없음)〉

(7) [3.1.1]

杰夫: 都一點了, 你怎麼還在睡覺? [진술,비난]
 王平: 我們³⁻¹中国人習慣午飯以後休息一會兒, 這叫“午睡”. [해명/설명]
 杰夫: 是嗎? 真對不起, 打擾了. [사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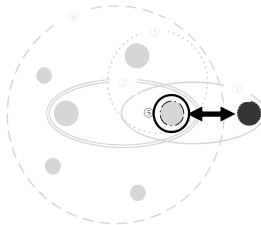
예(7)은 문화 차이와 관련된 주제의 대화문이다. 외국 유학생 杰夫가 중국인의 낮잠 자는 습관을 알지 못한 채 王平을 비난하자 王平이 중국인의 생활 습관에 대해 설명하며 ‘我們’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我們’에 대한 범위는 ②의 예처럼 발화 현장에서의 특징인을 지칭하거나 ③의 예처럼 현장에는 없지만 같은 행동권을 이루는 성원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화자 자신과 자신이 속한 민족 전체를 포괄적으로 지칭하고 있다. 화자 자신만을 지칭한다면 ‘我習慣……’으로써 선행 ‘비난’에 대한 해명으로는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개인 습관을 “這叫午睡”와 같이 정의하는 일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므로 ‘我們’으로써 화자 자신만을 지칭한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정의하기(“這叫午睡”)’라는 후행 발화를 염두에 둘 경우, ‘我

們’에 대한 해석은 ‘(我們)中國人習慣……’으로써 ‘我們’과 ‘中國人’을 등치시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다면, 뒤의 “午睡”라는 생활습관과 가장 적절하게 호응할 수 있는 어휘로는 그러한 생활 습관을 영위하는 실질명사인 ‘中國人’이 더 적절할 텐데 필수요소가 아닐 수도 있는 ‘我們’을 부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我們中國人……’을 ‘中國人……’과 비교해보면 이해 가능한데, ‘中國人習慣……’이라고 한다면 화자는 중국인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我們中國人習慣……’이라고 한다면 화자는 분명 중국인이다. 이 둘의 차이는, ‘我們’이 없는 경우 화자인 ‘나’는 中國人에 속하지 않는 외부 관찰자로서 ‘中國人’을 기술하는 경향이 크나 ‘我們’이 부가될 경우 ‘나’는 그에 속한 내부 기술자로서 ‘中國人’을 기술하는 경향이 크다. 이 때 ‘我們’은 ‘나도 그 中國人 중 한 명이다’라는 일종의 민족적 동질성(identity)을 부각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화자는, ‘내부’ 기술자로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 내의 상황을 기술한다는 점에서, ‘我們’으로써 자신의 발언에 진실성을 부여할 수 있다. 나아가 동질성을 기반으로 형성된 ‘나 대 너’의 습관 차이는 ‘내국인 대 외국인’이라는 대별 구도를 형성하며 부지에 기초한 杰夫의 비난에 ‘낮잠의 습관은 나뿐만이 아니다’라는 해명의 실마리까지 제공한다.

(3) 차용식 ‘我們’

차용식 ‘我們’은 그림1의 ⑤에 해당하는 유형으로서, 화자는 ‘我們’의 형식을 빌어 화자 자신인 ‘我’를 가리킨다.



〈그림6. 차용식 ‘我們’〉

(8) [2.12.2]

杰夫: 小姐, 蘋果多少錢一公斤?

[질문]

售貨員：七塊。
 麗莎：我覺得有點兒貴。
 杰夫：便宜點兒吧。六塊怎麼樣？
 售貨員：我們²⁻¹⁰這兒不講價，這蘋果不貴。[거절, 설명]
 杰夫：好吧，我買一公斤。
 ……



[대답]
 [진술]
 [요구]
 [요구]

예(8)은 구매를 주제로 한 대화문이다. 杰夫의 질문에 판매원이 가격을 답하자 麗莎가 비싸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杰夫 역시 깎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때 판매원은 杰夫의 요구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我們’을 ‘這兒’과 함께 사용하여 장소화하고 있다. 대화 내용 및 교재 속 그림으로부터 그것이 1인 판매대에서 이뤄지는 대화임을 짐작할 수 있는데, 그로 미루어 본다면 여기서 ‘我們’이 지칭하는 범위는 어떤 구성원도 포함하지 않는 ‘我’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판매원은 왜 ‘我這兒……’이라고 하지 않고 ‘我們這兒……’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거절’이라는 행위가, 개인적인 것이 아닌 상점의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일종의 원칙에 의한 흥정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화자의 의도는 ‘손님 대 점원’이라는 힘의 비대칭 구도를 ‘손님 대 상점’이라는 대칭 구도로 이끌 수 있고, 뒤를 잇는 부연 설명—“這蘋果又大又甜，真的不貴。”—과 더불어 말에 설득력도 부여할 수 있다. 뒤를 잇는 杰夫의 ‘구매(“好吧”)’는 그 같은 판매원의 의도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我’를 이용한 ‘我(這兒)不講價’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我們(這兒)不講價’라는 표현의 선택은 손님의 요구에 대한 일언지하의 개인적 거절을 회피케 함으로써 상대방의 (적극적)체면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도 기여한다. 또 다른 예를 보자.

(9) [3.4.2]

……
 志永：……可他聽不見我的回答，不知道是怎麼回事。 [설명]
 服務員：好，請告訴我您的房間號和電話號碼，我記一下。[질문]
 志永：19樓302，電話是63152750。 [대답]

服務員: 我再重複一遍, 19樓302, 63152750, 對嗎? [질문]
 志永: 沒錯兒。 [대답]
 服務員: 好, 我們³⁻²馬上派人去修。 [수용/언약]

예(9)는 전화수리와 관련한 대화문이다. 외국 유학생인 志永이 자신의 기숙사 전화기가 불통이라며 프론트에 수리를 요구하자 종업원이 곧 사람을 보내겠다면서 언약의 행위로서 수용하고 있다. 수용의 과정에서 종업원이 ‘我們’을 사용하고 있는데, 수리공을 여러 사람이 보낼 수 없다는 점과 거주자의 불만을 직접 접수하고 그 다음 행동을 취할 사람이 종업원이라는 점에서 ‘我們’은 ‘我’, 즉 화자 자신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눈여겨 볼 부분은 예(8)과 (9)가, 영어에서 I를 대신하는 we의 차용 유형에 비추어볼 때,(정무주 1998:172) ‘편집형 we’(editorial we)나 ‘권위형 we’(royal we) 중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편집형 we’란 “지금까지 우리는 ……을 살펴보았다”와 같이 논문 등에서 겸손을 통하여 동질성을 확보하고 의견의 수용 정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we’를 말한다.(何自然, 冉永平 2009:35)⁷⁾ 그리고 ‘권위형 we’란 “우리는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와 같이 흔히 국가수반 등이 공식석상 등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권위를 드러내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we’를 가리킨다.(정무주 1998:172~13) 편집형은 동질성 또는 객관성 확보에 의한 수용도 제고, 권위형은 권위의 발현이란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기 두 예에서의 ‘我們’은 어느 쪽에도 귀속되지 않는데, 이는 ‘我’를 대신하는 ‘我們’에는 편집형, 권위형의 이분법만이 아닌, 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존재함을 암시한다.

본고의 관찰에 따르면 ‘我們’은 특정 상황에서 위임받은 ‘대표성’을 표현하는 도구로도 사용된다. 예(8)과 (9)에서 화자는 모두 서비스업 분야의 종사자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소속된 상점/단체의 최전선에서 고객을 직접 대하는 존재이지만 ‘편집형’처럼 고객과 동질성을 확인하려는 사람도, 그렇다고 ‘권위

7) 정무주(1998:173)는 객관적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 ‘편집형 we’를 사용한다고도 한다.

형'처럼 대인을 향해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다. 하지만 회사는 서비스업이라는 특성상 고객을 대하는 그들 개개인이 회사를 대표하는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라는 단체의 힘을 위임하는데, 고객 역시도, 그들을 일개 개인으로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고객 대 회사'의 구도로 만나기 때문에 그 장(場)에서 할 수 있는 요구는 모두 그들을 통해 제기하고 필요하면 시정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로써 미루어 보건데, 서비스와 관련한 특정 상황에서 힘의 열세에 있는 화자는, 소속 단체가 위임한 '대표성'을 바탕으로, 화자 자신만을 가리키는 경우라 하더라도 '我們'을 이용하여 청자를 응대한다고 볼 수 있다.

3) 토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대략 세 가지다. 첫째, 교재 속에서 '我們'이 가진 주요 기능은 무엇인가; 둘째, 이같이 다양한 '我們'의 사용은 어느 수준의 교재에서부터 출현하는가; 셋째, 교재 속 '我們'에 대한 고찰 결과는 교재의 텍스트 이해에 무엇을 암시하는가가 그에 속한다.

첫째, 본고의 분석 대상 속에서 보인 '我們'의 주요기능은 유형별로 각각 '친화성', '대별성', '대표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기능에 대한 논의는 앞서 예를 통해 논의되었다. 다만 표1을 통해 본 '我們'의 기능별 분포 정도와, 기타 유형과는 다르게, 같은 유형에 속하면서도 그 포괄 범위를 경우에 따라 달리했던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배제식 '我們'이 가진 '대별성'이 '我們'의 기능 중에서도 가장 주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我們'의 다양한 지칭 범위의 사용은 놀랍게도 성모, 운모부터 시작하는 기초 단계의 교재에서부터 출현한다. 분석 대상의 제1권에서 출현하는 '我們'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3) [1.9.3.1]: 포괄식

- 安妮: 杰夫, 今天的作業我有一個問題, 你看看。 [요구]
 杰夫: 這個問題我也不懂。 [거절]
 安妮: 我們¹⁻⁷問問老師吧。 [제안]

.....

(10) [1.4.3]: 배제식

.....

王平: 我叫王平, 是中国人。你們是.....? [소개,질문]

安妮: 我們¹⁻¹是留學生。我叫安妮, 他叫杰夫。 [대답,소개]

(11) [1.7.4]: 차용식

..... 這是我們¹⁻⁶上課的地方,

那是留學生宿舍。食堂在宿舍的旁邊。



[설명]

예(3)의 ‘我們’은 앞서 논의했던 바대로 화자와 청자를 모두 포괄한다. 반면 예(10)의 ‘我們’은 청자인 王平을 제외한, 화자(安妮) 자신과 杰夫를 가리킨다. 그리고 예(11)의 ‘我們’은, 화자(杰夫)가 학교 지도를 펼쳐 보이며 소개한다는 맥락에서, 화자 본인만을 가리킨다.⁸⁾ 이는 그저 “我們”은 ‘우리’라는 의미의 1인칭 복수대명사다’라고 하기에는 교육에서 많은 것이 부족함을 보여준다. 그것이 어법 차원의 교육이라면 거기에 그쳐도 괜찮을지 모른다. 하지만 말하기 교육에서라면 상기 예들은, ‘우리’는 누구를 지칭하는가에 대해 되짚어 볼 것을 요구한다.

셋째, 교재 속 ‘我們’에 대한 고찰 결과는 교재의 텍스트 이해에 맥락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준다. 일개 어휘나 표현은, 형태적 측면에서만 보면 마치 외국어와 모국어를 일 대 일로 매칭시킬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기능적 측면까지의 고려는 그것이 거기서 왜 쓰였는

8) 이에 대해 부연하자면, 교재에서는 단락 앞에 “제프의 이야기”라는 이해를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데 杰夫가 처한 신분에 따라서 ‘我們’의 해석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杰夫가 개인적으로 친구들에게 자신이 다니는 학교를 소개하는 맥락에서 사용한 ‘我們’은 ‘我’, 즉 자신만을 가리킨다. 따라서 예(11)에서의 “我們上課……”도 “我上課……”로 해석된다. 그러나 杰夫가 학교 대표로서 학교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맥락이라면 ‘我們’은 화자 자신 및 자신과 함께 재학 중인 학생들을 가리킨다. 따라서 예(11)의 “我們上課”는 ‘재학생 대 비재학생’의 대별 구도에 의해서 배제식 ‘我們’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기초 단계의 교재에서부터 격식을 갖춘 장(場)을 가정하기가 어렵고 해당 단락의 삽화를 참고해서도 후자의 해석보다는 전자의 해석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

지, 즉 무슨 기능을 발휘하는지를 볼 수 있는 시야와 여유를 줄 것이다. 나아가 어휘는 어휘, 구는 구, 문장은 문장 식의 분절된 이해를 넘어 일개 어휘로 치부했던 것도 그것이 출현하게 된 배경, 즉 문장 전체, 대화 전체, 화자와 청자의 의도 전체와 연계되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본고는 중국어 말하기 교재 속의 인칭직시인 ‘我們’의 사용을 분포와 유형 등의 방면에 걸쳐 살펴보았다. 정리하자면 분포 면에서의 특징으로는, 전체 분석 대상 중 약 삼분의 이가 배제식 ‘我們’이었고 약 삼분의 일 정도가 후치부가 성분과 호응하였으며 단정 행위의 수행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유형 면에서의 특징으로는 화자와 청자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식, 청자를 제외한 채 화자 또는 화자 및 그와 관련된 성원만을 포함하는 배제식, ‘我們’이라는 형식으로써 화자 자신만을 지칭하는 차용식으로 나뉘었으며 맥락에 대한 화자의 인식 정도와 행위 수행 의도에 따라 각 회화 단락마다 각기 다른 지칭 범위를 보여주었다.

상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축을 갖는다. 말하기 교재 속 ‘我們’의 분포와 유형은 말하기 수업에 화용적 요인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다. 여기서의 ‘화용’은 이론으로서의 화용이 아닌 실천으로서의 화용을 말한다. 물론 교수자는 교실 수업에 앞서 텍스트에 대한 학습자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화용 방면의 요인들을 지식으로서 일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학습자에게는 ‘각 상황에 따라 말의 쓰임이 달라진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지식으로서의 화용 교육은 무리가 따른다. 이에 제안할 수 있는 것이 실천으로서의 화용이다. 즉 말하기 수업에 ‘움직임’을 도입하는 것이다. 직시가 화자 자신과 시/공간 등의 주변 상황을 이해한 결과라는 점에서, 자리에 앉아 주고받는 말의 교환을 넘어, 화자 스스로 행동으로써 자신의 ‘좌표’도 짚어보고 또 짚이나 그룹을 지어가며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 너, 그,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언어가 언어로만 머무르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속 인적 구성과 행위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또 그럼으로써 언어가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를 학습자로 하여금 몸소 경험케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상기 논의의 연장선 상에서 덧붙이자면, 교재 구성 시 삽화에 좀 더 세심한 배려도 요구된다. 삽화는 비록 한 컷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회화 단락의 핵심 상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앞서 예(8)과 (11)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도 그것이 텍스트 해석의 보조적 판단 준거로 기능하는 것을 보았다. 나아가 삽화는 말하기 수업으로 ‘움직임’을 도입하는데도 인적 구성 및 장소 등 발화 상황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그에 위배되는 삽화가 출현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2) [1.4.4]

我叫杰夫, 她叫安呢。我們¹⁻²都是留
學生, 我們¹⁻³的老師姓田。



예(12)는 소개를 주제로 한 단락이다. 교재에서는 회화 단락 서두에 “제프가 왕핑에게”라는 맥락이 제시되어 있지만, 삽화에서는 杰夫와 安呢가 田老師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모습으로 설정되어 있다. 적절한 삽화라면 杰夫와 安呢가 王平的 맞은편에 서 있고 화자인 杰夫가 安呢와 田老師를 언급하는 모습이어야 한다. 그래야 ‘我’는 누구이고 ‘她’는 누구인지, 그리고 ‘我們’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지칭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직시의 관찰이 향후의 교재 구성을 위해 던지는 주의점 중 하나일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박찬욱(2005), 試論制度性情景中出現的人稱指示—以電臺主持人使用的‘我們’爲例, 中國語文學論集, 제31호, pp.165~185.
- 박찬욱(2009), 중국국가지도자 신년사의 행위구조와 ‘我們’—江澤民의 1997년, 1999년 신년사를 중심으로, 中國語文學論集, 제57호, pp.165~195.
- 이성범(2012), 화용론 연구의 거시적 관점—이론과 실제, 서울: 소통.
- 정무주(1998), 인칭대명사와 담화역할, 현대문법연구, 12, pp.169~186.
- 戴桂芙 劉立新 李海燕(2009), 北京大學 한어구어(1), 중국어뱅크
- 戴桂芙 劉立新 李海燕(2010), 北京大學 한어구어(2), 중국어뱅크
- 戴桂芙 劉立新 李海燕(2010), 北京大學 한어구어(3), 중국어뱅크
- 何自然, 冉永平(2009), 新編語用學概論,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索振羽(2000), 語用學教程,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Clark, Herbert H.(1996), Using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김지홍 역 (2009), 언어사용: 밑바닥에 깔린 원리, 서울:경진].
- Huang, Yan(2006), Pragmatics, Oxford University Press[이해운 역(2009), 화용론,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Levinson, Stephen C.(1983), Pragma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이익섭, 권경원 역(1992), 화용론, 서울: 한신문화사].
- Lyons, John(1977), Semantics(vol.2), Cambridge University Press[강범모 역 (2013), 의미론2: 의미와 문법, 맥락, 행동, 서울: 한국문화사].
- Searle, John R.(1979), Expression and Meaning: Studies in the Theory of Speech Ac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2001년도 판).

❖ ABSTRACT

Consideration on deixis on the Chinese Conversation
Textbook: Focused on Women(我們)

Park, Chan Wook

This paper aims to examine distribution and patterns of Women(我們) on Chinese conversation textbook, and also suggest that Chinese class need to impose pragmatic perspective.

For this purpose, this paper explores 35 Womens in 42 conversation units on three Chinese textbooks Hanyu Kouyu vol.1~3 at first. Women is more contributed on 'exclusive Women' among three categories (inclusive, exclusive, borrowed) than other two categories, is also contributed on 'symbolic usage' than 'gestural usage'. Second, this paper examines patterns of Women on the three categories. It shows: first, 'inclusive Women', 'exclusive Women', 'borrowed Women' all show up on the textbooks even though on the textbook vol.1(for beginner) surprisingly; Second, 'exclusive Women' may be a primary one of three categories in terms of the coverage of Women. Women covers those who are related with the speaker regardless of being on the spot, and also covers those which the speaker belongs to, for example, nationality, ethnicity etc.

Consequently, the results show that Chinese speaking course, from now on, needs to consider pragmatic factors including existing semantic and syntactic factors, and from the pragmatic perspective, impose 'action'(including speech act, body gesture etc.) on Chinese conversation class for the learners' improvement in Chinese speaking.

Key Words

인칭직시, '우리'(我們), 중국어 회화 교재, 화용론적 시각, 중국어 회화 수업
person deixis, Women(我們), Chinese conversation textbook, pragmatic
perspective, Chinese conversation class

논문접수일: 2013. 05. 10.

심사완료일: 2013. 06. 02.

게재확정일: 2013. 06. 07.